



일본 1996년 해사채권 책임제한협약 채택

책임한도액 76LLMC보다 2.3배-6배 증액

일본 정부는 2006년 8월1일을 기해 해사채권에 대한 선주의 책임한도액과 관련하여 기존의 76LLMC(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협약 :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를 폐지하고 96LLMC를 도입한다.

일본은 7월29일 76LLMC의 폐지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한데 이어 8월1일 이를 폐지한데 이어 조만간 96LLMC 체약을 국제해사기구에 신청할 계획이다. 96LLMC는 국제해사기구에 체약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96LLMC상의 해사채권에 대한 선주책임한도액을 수용한 일본 개정국내법이 지난 6월10일 국회에서 통과된데 이어 6월15일에는 96LLMC의 가입안이 승인됐다. 개정된 법안은 2006년 8월1일부터 발효된다.

96LLMC의 책임한도액은 종전 76LLMC에 비해 인명사고나 기타사고 발생시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증액된 것으로 향후 사고처리를 위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과 계약서상에 재판관할 및 준거법 협의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일본 국내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96LLMC에 따라 선주책임한도액이 대폭 증액됐으며 여객사고에 대한 한도금액을 삭제했다.

이와함께 외항을 항행하는 100톤(국제총톤수) 이상의 일반선박은 2005년 3월1일부터 선체 철거 및 유류오염손해비용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이 보험의 최저 보장금액도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96년 5월2일 제정된 96LLMC는 10개국 체약이라는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금년 5월 13일 발효됐으며, 현재 체약국은 호주, 독일, 영국, 핀란드, 덴마크, 통가, 러시아, 시에라레온, 노르웨이, 말타, 알바니아,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스페인, 스웨덴, 페로스제도 등 16개국이다.

전세계 컨선복량 향후 4년간 64% 증가

전세계 컨테이너선복량이 오는 2008년말까지 올해 초보다 64.5%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해운중계업체인 BRS-Alphaliner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기준 전세계 컨테이너선복량은 1천200만8천53TEU로 올 1월 1일 기준 729만 8천147TEU와 비교해 6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간 13.3%씩의 증가율을 보이는 셈.

연간 증가율은 올 한해 94만4천38TEU · 285척의 선대가 시장에 투입됨에 따라 전년대비 1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에는 126만2천207TEU · 349척에 이어 2007년에는 134만8천978TEU · 393척이 각각 인도됨에 따라 증가율은 15.3%, 14.2%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에도 115만4천683TEU · 267척이 시장에 나옴에 따라 증가율은 10.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세계 컨테이너선대의 높은 증가율은 4천TEU급 이상의 중대형선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